

# 영웅의 삶을 통해 되돌아 본 '남도 항일정신'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건다

노성태 | 살림터 | 1만9000원



순천시립공원 묘역에 잠들어 있는 이금주 여사는 지난 2021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

이 일본에 징용돼 1943년 11월 전사한 것을 계기로 일평생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가 눈을 감은지 1년도 넘었지만, 여전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현재진행형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확정판결에도 배상은커녕 사죄 한마디도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해 말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된 데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대신한다는, 이른바 정부의 '제3차 번제안' 추진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광복 후 잃어버린 강제징용자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 광주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설립하는 등 치열하게 싸워온 이금주 여사가 살아있었다면 무슨 말을



순천시립공원 묘역에 잠들어 있는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했을까? 노성태 저서의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건다'에 따르면, 과거의 만행에도 일본은 사과와 배상도 없고, 징용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저술돼 있다. 책에는 이금주 여사의 과거 유언도 함께 소개돼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혈육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의해 입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다. 이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명예회복뿐이다." 이는 어떤면 강제징용 갈등을 자초한 지금의 정부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광주와 전남지역의 역사를 유적지, 인

물, 지역·마을·단체를 등으로 소개하는 책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건다'가 출간됐다. 이금주 여사가 한평생 보여준 족적은 정의로움, 항일, 독립, 민주화로 집약되는 남도 정신과 닮아있다.

저자 노성태는 2010년 1월부터 본보에 '노성태의 남도 역사기행'을 연재했다. 그것을 정리해 만든 책이 2012년 출간된 '남도의 기억을 건다'였다. 이후 광주의 역사와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썼고, 그 글은 '광주의 기억을 건다'로 출판됐다. 두 책에서도 남도가 품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문화유산을 이야기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남도의 역사를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0년 2월부터 다시 본보에 '노성태 샘의 남도 역사 이야기'를 50회 연재했다. 이 글을 엮은 것이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건다'이다.

'다시, 남도의 기억을 건다'는 크게 4장으로 나뉜다. 제1장은 '해신이된 공복, 장보고'이고, 제2장은 '조선의 운명을 건져낸 울돌목, 명량', 제3장은 '동학농민군 전투의 분수령, 장성 황룡 전투', 제4장은 '의열투쟁의 출발, 유리개결지사 기산도'이다.

50편에 달하는 짧은 글들을 네 개의 장으로 나뉜 것은 시대를 기준으로 했다. 1장은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제2장은 조선시대, 제3장은 근대, 제4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로 구성됐다. 시대별 역사와 인물, 사건 등을 중심으로 남도 정신을 만들고 실천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이 책은 최치몽, 황대중, 정걸, 황준성, 나월환, 김범수, 장석천, 이금주, 윤학자 등 알려지지 않은 남도의 영웅들을 통해 남도 고유의 정체성과 시대성을 조명한다.

저자 노성태는 책 서문을 통해 "지역사를 들여다보니, 남도인만의 문화와 정체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시대를 앞장서 실천한 절의와 정의로움이었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넓은 평야지대인 남도는 문화원형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며 "남도의 역사 현장은 어디나 뜨겁고, 감동이며, 당당함이 묻어있다. 책이 남도의 뜨거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자 노성태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등을 졸업했으며 37년간 역사교사로 재직했다. 퇴임 이후 지역사 관련 글을 쓰고 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등 지역의 대중역사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국정교과서 반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위원, 2017년 광주시교육청 역사문화위원회, 2017년 안중근의사승모비 재건추진위원, 2021년 광주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독립의 기억을 건다, 남도의 기억을 건다, 광주의 기억을 건다, 광주 3·1운동 등 다수가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인간의 본질을 찾는 시인의 마음 밭 읽기

연대시 인생 12 진법

오명규 | 한림 | 1만2000원



누구에게나 사색과 성찰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면서 정신적 자양분이다. 1972년 등단한 이후 50여 년 동안 시와 함께 해 온 86세의 오명규 시인. 그에게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자신을 지탱하는 근원이면서 삶의 원형이다.

그가 자신의 6번째 연대시집 '인생 12 진법'을 출간했다. 명리학에서 나오는 12진(進)법을 한단계 뛰어 넘어 그가 말하는 12진(陳)법은 장수가 전쟁터에서 진법을 운용하듯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

'단순하지 않은 세상, 온통 먼지에 묻힌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

인지'를 자문하고 싶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오 시인이 말하는 '12진법'은 너와 나, 사랑, 죽음, 고독 등 모두 12가지다. 서민의 애환이나 감성을 추구하기 보다, 인간의 본질을 찾고 사색적이고 자기성찰을 위한 자신만의 지혜다. 하나의 시어를 순서대로 정리한 '연대시'도 그가 창작한 형식이다. '우주 나이 135억 년 지구 나이 45억년, 은하계의 강물 따라 흘러온 세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군소리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의 세계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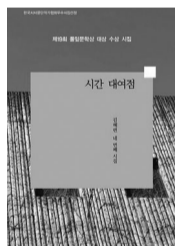
공주사대를 졸업한 오 시인은 1972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광주문인협회장과 문학과 비평, 시학과 시 주간 등을 역임했다. 광주 동아여고 교장으로 정년 한 후에는 칠산바다가 보이는 구수산에 집거하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을 노래하다

시간 대여점

김혜련 | 그림과책 | 1만800원



제19회 풀잎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혜련 시인이 2023년 전라남도문화재단 창작기금지원사업에 선정돼 네번째 시집 '시간 대여점'을 펴냈다. 세번째 시집 '야식 일기'를 낸 지 3년 만의 출간이다. 김 시인은 전자 시집에서 여류 시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감상주의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냉혹함과 삶의 무게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비수처럼 냉철한 언어로 진솔하게 담아내는 리얼리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집은 현실의 냉혹함과 고달픈 삶의 무게를 김혜련 시인 특유의 서정으로 풀어내어 삶에 대한 소박한 성찰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시집에는 103편의 시가 총 5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1부는 표제작이 '달빛 멘토'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주제로 한 시 24편을 담았다. 2부는 '희망 고문'을 표제작으로 노동 현장의 애환과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시 20편을 묶었다. 3부 표제작은 '그리움이 알을 낳네'로 일상의 체험을 울림 있는 시어로 담담하게 다룬 자아 성찰적인 시 24편을 엮었다. 4부 '심리 샤워'를 표제작으로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예찬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한 치유 경험을 다룬 시 14편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5부는 '울음이 열리는 나무'를 표제작으로, 가족애와 유년의 추억을 담아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슬픔의 이면에 녹아 있는 따뜻한 시어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에 매료돼 순천 오

천동으로 이사회 그곳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김 시인은 시집의 서문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내면의 수많은 불순물들을 고성능 드럼세탁기처럼 세탁해 준다'고 예찬한다. 그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시점에 맞춰 네번째 시집을 발간하게 돼 뜻깊고, 앞으로도 꾸준히 순천만 국가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주제로 한 시를 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시인은 광양에서 출생해 2000년 월간 '문학21', 2007년 월간 '시사문단'으로 등단해 23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0, 2020, 2023년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문학 분야 작가로 선정됐으며, 시집 '피멍 같은 그리움(2007)', '가장 화려한 날(2010)', '야식 일기(2020)', 공저 '평행선(2000)' 외 26권을 냈다. 제2회 북한강문학상, 제19회 풀잎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

약마는 잠들지 않는다

줄리엣 카이엠 | 민음사 | 1만8000원

3년여간 계속된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풍경을 전면 바꾸어 놓았으며 폭염과 혹한, 산불과 가뭄 등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재난 대응의 일급 전문가인 줄리엣 카이엠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재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재난은 일순간 터지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훨씬 전부터 이루어진 공공정책과 의사결정이 키워키 축적된 결과다. 책은 일상화된 재난시대에서 통찰력 있는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해독요법

박정미 | 모아북스 |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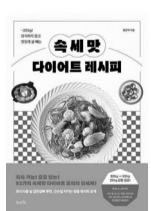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봐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의 저자는 일상 생활에서 건강을 되찾는 열쇠로 몸속에 쌓인 독소에 주목해보라고 한다. 저자는 독소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해독요법을 상세히 해설하고 16시간 해독과정의 실천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서 온갖 방법을 해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해독요법에 주목해보자.



속세맛 다이어트 레시피

황은학 | 북라이프 | 1만7500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맛있는 음식의 유혹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다이어트 메뉴는 맛이 밍밍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헛헛해서 결국 참지 못하고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이 책에 수록된 메뉴들을 속세 음식처럼 맛있고 든든해서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모태똥똥'에다 출산 후 급격해살이 켜졌으나 탄탄한 몸매로 변신을 성공한 저자의 비결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정확한 말, 세련된 말, 배려의 말

강성곤 | 노르웨이숲 | 1만6800원

문해력이 화두다. 이 책 한 권이면 자주 틀리는 표현,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들까지 교정할 수 있다. 또 이왕이면 덜 썼으면 하는 일본어, 영어식 표현 잔재들을 꼬집고 있다. 37년간 KBS 아나운서로 일해온 저자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저자의 문제 제기는 독자에게 정확한 말, 세련된 말, 배려의 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연수

장류진 | 창비 | 1만6800원

첫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10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장류진 작가의 신작 소설집이다. 젊은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한, 운전연수를 받는 운전공포증 환자 '주연'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소설 '연수'를 시작으로 총 여섯 편의 이야기를 전한다. 각기 다른 짙막한 여섯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처음을 겪는다. 소설은 처음을 마주한 주인공들이 연일 느끼는 두려움, 당혹감, 부정, 반의 등을 담았다.

